에너지 분야 가상 R&D 플랫폼 구축

나주시, 전력 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공모 선정
국비 등 141억원 확보…차세대 시스템 기술개발 착수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전경.

나주시가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사업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6억원 등 사업비 1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차세대 전력변환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한 가상환경기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및 안전도 향상 등을 도모한다.

나주시는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와 함께 한국전력,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목포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혁신산단 입주기업과 '에너지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30억원을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나주 혁신산단에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목포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혁신형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기반한 개발시험 인증 플랫폼 4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1년차는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2차년도부터 전남지역 50개 이상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화 솔루션·장비 활용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에너지수도 나주에 입주한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고인돌 체험하고 캠핑할까…황룡강변 꽃길 걸을까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개장

도곡면에 41면 조성…취사장·샤워실 등 갖춰

화순군이 6일 도곡면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사진〉을 개장한다.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1만 2407㎡ 규모로 이곳에 야영사이트 41면을 조성해 가족 단위 이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 캠핑장 이용객을 위한 취사장,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도 갖춰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비수기 평일(일~목요일)과 공휴일 2만 원, 비수기 주말(금~토요일·공휴일 전날)과 성수기(7~8월) 2만5000원이다.

예약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누리집(https://dc.hwasun.go.kr)에서 할 수 있다.

캠핑장 주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선사 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가 있어 선사시대를 체험하는 재미도 즐길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오토캠핑장 인근의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선사 체험장, 고인돌 유적지 등 관광 체험 자원과 연계돼 거석문화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잘 운영해 힐링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 묵은지' 군침 흘리는 동안 품절됩니다

군, 6개월 숙성 가정식 5만 포기 판매 중…100% 국내산 재료 사용

강진 묵은지〈사진〉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김장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묵은지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0년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강진군 묵은지 사업단'을 꾸리고 고유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16개 업체가 함께 김장하고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판매를 시작해 전체 물량이 동났으며, 매출액은 2억5600만원이었다.

강진묵은지는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하며 지역 전통 방식으로 담근다. 양념과 젓갈을 풍부하게 사용해 오래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나고, 청각을 넣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토하젓, 황칠 등 가정 고유의 비법 원료를 녹여내 가정마다 다양한 풍미와 맛을 낸다.

군은 지금까지 35개 업체가 영업 등록을 완료하고 9개 업체는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는 5만포기를 한정 생산했는데 현재까지 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군은 전했다.

강진묵은지는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061-433-8844)에서 택배비를 포함해 1kg당 1만원에 살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함평천지길'이 경관 조명 설치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 휴식처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함평천지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함평군 제공〉

2019년 축제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3년만에 재개

20~29일 개최…공연·전시·체험 행사 풍성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장성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장성군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황룡강 봄꽃 단지를 무대로 '황룡강 홍(洪)길동무 꽃길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오랜만에 다시 축제가 열리지만 장성군은 방역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로 보고 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몰리는 개·폐막식을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공연과 전시, 체험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콘셉트로 올해 축제를 구성했다.

첫날인 20일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동춘서커스팀의 개막공연이 축제의 막을 연다.

토·일요일에는 황룡강 생태공원에 마련된 소공연장과 문화대교, 힐링허브정원, 장안교 인근에서 지역문화예술인 공연과 미니 버스킹이 흥을 돋운다.

봄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는 힐링허브정원과 박터널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휴식공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장성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청강창극단의 창작공연 '황룡 가온' 공연이 오후 4시, 7시 2차례 대공연장 무대를 장식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가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5월호

2022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예향 초대석
탄생 40주년 맞은 '님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한 곡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계 화제
곡성 출신 정원디자이너 황지해의 소박한 예술 자연주의 정원

클릭, 문화현장 ㉕
아시아 도자문화 거점으로 도약
국립광주박물관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㉕
'모노하' 작가 스가 돼지국밥에 막걸리 즐겨

해외문화기행⑥-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에선 음악이 춤을 춘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뮤지컬 '광주'에서 '거리 천사'로 열연한 배우 김은숙
'비움'의 진짜 의미 전하는 미니멀리스트 작가 이혜림
리그 1라운드 맹활약, 광주FC 베테랑 선수 이으뜸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⑪
영화 '어바웃 타임'과 아르보 패르트 '거울 속의 거울'